

“고령 운전 관찮나”...광주·전남서도 갑론을박

65세 이상 사고 연 3000여건...증가 추세에 면허증 반납 여론 높아 교통편의시설 부족한 전남 반납 부진 속 “노령 타 사고로 단정 안돼”

서울 시청역 사고를 비롯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박탈·자진반납 조치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령운전자=교통사고 위험’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운전면허 반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에 앞서 대체 교통 수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총 1만 525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고령운전자 사고는 3462건(22.6%)으로 다섯 건 중 한 건 꼴이었다.

광주의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7718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 6972건으로 줄었다. 역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000건(18.6%)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에서는 2020년 1950건(19.8%)에서 점차 증가해 2023년 2159건(26.0%)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령운전자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광주의 운전면허소지자 수는 2023년 기준

95만 5928명이며, 이 중 11만 1286명(11.6%)이 65세 이상이다. 정부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인 75세 이상 운전자 수도 2만 2886명으로 전체의 2.3%에 해당한다.

전남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남의 운전면허소지자 114만 7138명 중 65세 이상은 19만 5588명(17.0%)에 달한다. 이 중 4만 8209명(4.2%)은 75세 이상이다.

광주의 고령운전자 수는 2020년 8만 7625명에서 2023년 11만 1286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남 또한 2020년 15만 4906명에서 2023년 19만 5588명으로 늘었다.

이번 시청역 참사가 발생하자 광주 시민 사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박탈하거나 면허증 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신체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돌발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정부와 지자체의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의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는 2021년 2299명(광주경찰은 미집계), 2022년 6615명, 2023년 6093명으로 매년 전체 소지자의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7일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추모 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면허 자진 반납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남은 대중교통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실상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종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 교수는 “현재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시 얻는 이득이 없고 불편한 점만 있다고 느끼고 있다. 대체

교통편이나 인프라 등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이 저하된다는 점을 자각할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 대체 교통 수단에 대한 정책적 보조를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강화해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 면허증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으면 자동으로 가속을 차단하는 기술을 차량에 적용하는 등 제도, 기술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고령운전자 사고를 단순히 운전자의 나이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단정지으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만큼,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자연히 증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련의 사고를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고정관념과 편견, 나아가 차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며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재생산하는 것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서울 서구 시청역 인근에서는 60대 후반 남성이 몰던 차량이 역주행 후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화제의 판결

SNS ‘선물하기’로 집요한 메시지...스토킹?

검 “불안감 조성 스토킹”...법 “합의했고 처벌법 개정 전 행위” 기각

SNS 메신저의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스토킹에 해당할까.

검찰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보고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봤다.

A(29)씨는 2022년 12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B씨를 알게 돼 연락을 했다.

이에 B씨는 “난 그냥 너에게 관심 없어”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A씨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사를 밝혔다.

B씨는 SNS메신저 상에서 A씨의 문자 등을 받지 않으려고 친구차단 조치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친구를 차단했어도 특정 SNS 메신저의 ‘선물하기’ 기능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선물하기’를 이용하면 짧은 메시지를 함께 보낼 수 있다.

A씨는 선물을 보내고 “기분풀어, 관심없는 거 알아”, “미안해”라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곧바로 선물을 취소했다.

B씨는 A씨가 이런 방식으로 2022년 12월 16일부터 3월 14일까지 총 239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자 B씨는 신고를 했다.

검찰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으나,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가 합의를 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지만, A씨의 행위는 개정 전 행위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다.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지만, A씨에게는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부당”

법원 “광주 이용 대상자 5명 불과...지자체 과도한 부담 아냐”

광주지역 지자체가 65세 이상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까.

법원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령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신청자격과 심사기준 심사방식을 강화해 불필요한 급여제공을 억제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중증 발달장애인 A(66)씨가 광주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아왔지만, 만 65세가 된 지난해 10월 북구로부터 ‘주간 활동 서비스 중지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북구는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65세 미만’만 이용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2023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사업안내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고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65세 이상의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 한다”는 북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주시에 지난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예산은 82억여원(국비 51억원+ 시비 31억원)이고, 광주가 별도로 지원하는 (주말) 주간활동서비스 총사업비는 9억원 가량이며, 지난해 6월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간활동서비스에 관한 광주시의 2024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0억원 가량 증액되기는 했다”면서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액된 예산을 초과할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런 사정이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한편 이에 앞서 광주시 광산구의 발달장애인도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광산구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갈에 속은 지적장애 10대

아버지에 흥기 휘둘러 실형

지인들에게 속아 아버지에게 흥기를 휘둘른 중증 지적장애 1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현)은 특수준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9일 오후 8시 10분께 자택에서 아버지 B(61)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초등학교 후배와 친구들에게 돈을 가져다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후배와 친구들은 A군이 후배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훔쳐갔으니 이달 안에 50만원을 주고 우선 이번 주까지 2만 원을 갚아라”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A군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뼈를 부러트리거나 소년원에 보낸다”고 협박하기도 했다.이에 A군은 이들을 집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아버지에게 “2만 원을 달라”고 했으나 돈을 주지 않자 싱크대에 있던 흥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지만, 지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주세요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애니로마트점점 062)511-2901~3